

각주, 참고문헌 및 조테로 사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학문연구란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찾아낸 업적들을 활용하여 나의 새로운 발견을 더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연구해 놓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문헌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문헌들을 살펴 보고, 그들이 잘 한 것은 잘 활용하고, 잘못된 것들은 비평해서 자신의 연구를 더 깊이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을 써야 하는 이유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써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표절을 (plagiarism) 피하기 위함이지만, 참고문헌이 연구논문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고, 연구자의 학문적인 동반자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움으로 연구자들이 표절시비에 연루되지 않고, 자신들이 공부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학문적 동반자들을 독자들에게 잘 소개 할 수 있도록 한다.

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참고문헌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연구에 언급한 자료들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활용하거나 비평할 때는, 그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서 써야 한다. 이런 정확성과 정직성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표절 (plagiarism)이라고 한다. 표절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으로 간주된다.

참고문헌이 연구논문의 성격과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참고문헌 정보는 더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석과 참고문헌만 원하는 독자들에게 그 유용성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논문을 평가할 때, 그 논문의 내용보다, 먼저 그 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저자의 독서 이력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게 하는 가장 농축된 형태의 정보가 바로 참고문헌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고문헌 정보는 그 책이나 논문을 선택한 독자에게 책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인덱스**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에 언급된 사람들은 연구자의 학문적인 동반자임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서, 주석과 참고문헌에는 지은이와 편집자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에서 보여주는 저자들이나 문헌들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책으로 연결된 저자의 공부 친구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저자가 언급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문헌들은 연구자의 동반자들이기 때문이다.

표절을 (plagiarism) 피하는 법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

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표절과 모방

표절과 모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것이다. 패러디도 (Parody)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hommage) 역시 표절과 구별된다.

표절심사 가이드라인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참고문헌을 기록해야 할 상황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종합하면 4가지를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반드시 참고문헌을 밝혀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를 (“ 6단어 이상 그대로 인용”) 붙이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연쇄적인 단어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표현했음지라도 의미가 같을 경우

이 경우에는 따옴표는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이 경우에도 따옴표는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원저자의 특별한 단어나 용어를 빌려 쓸 경우 그 단어에 따옴표를 할 수 있다.

이전에 쓴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이전 것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저작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 쓴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저작에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신의 저작이라도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다른 논문이나 글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등은 금기 사항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대한 표절”로 분류한다.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법

현존하는 참고문헌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몇 가지 표준 방식이 있다. 각 나라마다 특성상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법의 종류

미국의 대표적인 참고문헌 방식은 APA 방식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시카고 방식 (Chicago), Turabian 방식, 하버드 방식 (Harvard), MLA 방식, ACS 등이 유명하다. 시카고 방식이란 (Chicago Style) 학술분야에서 엄밀한 편집으로 오랜 기간 명성을 쌓아온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내놓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에 실린 참고문헌 스타일을 (bibliography style) 말한다. 시카고 스타일은 “인문학방식”과 (Chicago Humanities Style) 그리고 “사회과학분야방식”으로 (Chicago Social Science Style) 나뉜다.

그 가운데 사회, 역사, 예술 분야의 글들에는 APA가 가장 많이 쓰인다. APA 방식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시카고 사회연구방식과 같다 (Chicago Social Science Style). 그리고 신학과 과학적인 글들은 주로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을 사용한다. 이 Turabian 방식은 시카고 인문학방식과 (Chicago Humanities Style) 동일한 것이다. **GMU에서는 교수님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참고문헌 작성 원칙

다음은 한국 표준 및 미국 스타일을 따른 참고문헌 작성 원칙이다.

- 1)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글자들은 키보드에 있는 문자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자료를 다른 파일로 옮겨도 원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한글의 경우, 특수 문자 사용은 한자만 (漢字) 예외로 하며, “한글”에서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한다.
- 2) 영어 방식의 경우 논문 제목은 “따옴표”로 표시하며, 도서는 *이탤릭체*로 한다. 이 원칙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도 같이 적용된다. 한국식은 논문명은 <>로 표시하며, 도서는 <<>>로 표시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특수 문자인 「」나 『』는 사용하지 않는다.
- 3) 한국식은 예로만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는 영어식 표현만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식 논문명 표시인 <>와 도서 표시인 <<>>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교에서는 한국의 자료들도 영어식으로 표현하여 참고문헌 작성을 해야 한다.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 참고문헌 (Bibliography) 작성법

다음은 이 방식을 따라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각주를 (footnote) 쓰는 방식은 참고문헌을 (Bibliography) 쓰는 방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각주 쓰는 방식을 따로 배울 것이다.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 참고문헌 규칙

아래의 설명 부분에서 사용한 “(())” 표시는 참고문헌 형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강의안에서의 설명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중괄호는 학생들이 논문에 쓰지 않는다. 참고문헌에 사용한 띄어쓰기는 (space) 모두 하나의 띄어쓰기이다.

1. 영어의 경우 논문 제목은 “논문제목”과 같은 따옴표 형식을 사용하고, 책 제목은 *이탈리아*로 한다. 이전에 책제목에 의미하던 밑줄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식의 경우 논문제목에는 < >, 책제목에는 << >>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자료라도 미국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영어 참고문헌의 경우에, 본문에 달린 각주와는 달리, 성을 앞에 쓴다. 한국 사람들의 이름인 경우는 참고문헌이나 각주의 이름의 표시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이름이라도 영어로 쓸 경우는 영어식 표현을 쓴다.
3. 같은 저자의 문헌정보는 두 번째 문헌정보부터 이름 대신 8 개의 밑줄을 친다.
그러나 영어의 APA 방식에서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계속 쓴다. Chicago 방식을 쓰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름을 계속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4. 문헌정보와 문헌정보 사이에는 빈 줄이 없게 편집한다.
5. 여러 문헌들을 저자의 성씨 순으로 정렬한다. 영어 문헌을 앞에, 한글 문헌을 뒤에 함께 모아서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6. 쉼표, 마침표는 정확하게 기재하며, 괄호 앞에는 쉼표가 없다.
7. 글의 맨 뒤에 나오는 참고문헌 목록과 각 페이지의 밑에 쓰는 각주의 형식은 다르다. 각주에서는 각 항목들, 즉 저자 이름, 글 제목, 책제목, 출판도시와 출판사, 출판년도 등의 구별을 (,)로 쓴다. 그러나 참고문헌에서는 각주에서와 달리 각 항목을 모두 (.)로 구별한다.

8. 잡지 논문의 경우에 각주에서는 책과 페이지 사이의 콜론 뒤에 한 칸 띄우고 (38 (1996): 11-18) 표시하였으나,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한 칸 간격을 띄우지 않고 앞의 콜론에 붙인다 (38 (1996):11-18).
9. 하나의 참고문헌이 길어서 두 줄이 될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왼쪽 들여쓰기에서 첫 줄보다 0.5 인치 (한국식은 한 글자) 들어가도록 한다. 이런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로 빈 공간을 타이핑하여 맞추면 안 되고, 문단 정렬자를 움직여서 설정하여야 한다.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 참고문헌 (Bibliography) 예

((잡지논문 및 동일저자))

김민제. "영국 헨리 8세 초기 의회의 이상과 이권 절충 - 1510년부터 1515년까지의 법령과 프로비소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32 (1989):1-36.

김민제. "영국 국교회의 안전보장과 Peel의 카톨릭 교도 해방을 위한 변전". *홍익사학* 4 (1990):63-86.

((사전류))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 "루터". 서울: 동아출판사, 1983.

((학위논문))

이영희.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운동 연구". 모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단행본))

정철수. *프랑근대사*. 서울: 참신사, 1995.

((일간 신문 및 주간지))

조선일보. 1986, 2, 4.

((복수 편저자, 단행본;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을 성 앞에 씌))

Arnold, Michelle & Mary Swope, eds. *New Trends in Historiography*. Philadelphia: Claxton, 1972.

((사전류))

Encyclopedia of Historical Science, 2nd ed. "Calvinism" by Nancy Ring Brenner.
Encyclopedia of Historical Science, 2nd ed.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by Rudolph Klein.

((일간 신문 및 주간지))

"Historians at War Again." *Los Angeles Dispatch*, January 14, 1969.

((단행본))

Parton, Norman. *Ancient and Modern Thinking*. London: Fernival & Ashwood, 1956.

((저널논문))

Roland, Cleveland. "Machiavelli and Modern History."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14 (February 1949):46-60.

((단행본 및 동일저자))

Stanforth, Charles. *Cyclical Theory in Arnold Toynbee*. London: Greath & Sons, 1950.

Stanforth, Charles. *The Study of History*. New York: Crown, 1961.

((인터넷: 저자. 접속한 날짜. 글의 제목. 인터넷 주소. 작성자 또는 웹사이트 주인. 언어))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29 March 2006). *Mentoring program survey: Student/Protégé*.

<http://www.uncfsu.edu/univcoll/mentoring/mentoringsurveystdnt.ht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English.

((출판되지 않은 글: 저자. 글의 제목. 발표 또는 사용 장소. 년도))

김현완. "문헌정보 강의안". 그레이스대학교, 2012.

TURABIAN (Chicago Humanities Style) 방식 각주 (Footnote) 작성의 예

각주를 기록하는 방식은 참고문헌을 기록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 차이점을 잘 유념하여 각주를 정리해야 한다.

한 문헌을 한 번만 사용한 각주 작성

1. 각주 번호 앞의 들여쓰기는 0.5 인치 띄우고, 이하는 모두 왼쪽 끝에 맞추어 정렬한다.
2. 각주의 경우 참고문헌과는 달리 모든 항목들은 (저자 이름, 글 제목, 책제목, 출판도시와 출판사, 출판년도 등) 모두 (,)로 구별한다.
3. 각주의 각 요소 중에서 (출판도시: 출판사, 년도)는 이와 같이 괄호 안에 표시한다.
4.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대, 소문자 구별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준수한다. 문서 이름이나 글의 제목의 관사, 전치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소문자로 한다.
5. 인용한 내용이 한 페이지인 경우는 소문자 p., 두 페이지 이상은 소문자 pp.로 적는다. 단 학술지의 경우는 p.와 pp.를 적지 않는다.
6. 저자의 영어 이름은, 문헌의 각주 경우에 참고문헌 목록의 경우와는 달리, 이름을 앞에, 성을 뒤에 적는다.

다음 예에서 저자 앞의 숫자는 각주 번호를 의미하며, (())표시는 설명 부분이다. 이 설명 부분은 참고문헌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것뿐이다.

- 1 김민제, “영국 헨리 8세 초기 의회의 이상과 이권 절충 - 1510년부터 1515년까지의 법령과 프로비소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42 (1989): 32. ((잡지논문, 한 페이지))
- 2 김응종, *아날 학파* (서울: 민음사, 1991), pp. 62-63. ((두 페이지 이상 인용했을 때))
- 3 코온, 민석홍 역, *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1958), p. 56. ((한글 번역본))

- 4 “견인차 등록제 실시 - 부당요금 철저 단속”, *동아일보* (1993. 9. 4.), p. 23.
((일간 신문 및 주간지 기사))
- 5 Stanford E. Lehmborg, “Early Tudor Parliamentary Procedure: Provisos in the Legislation of the Reformation Parliament,” *English Historical Review* 34 (January 1970): 2-3. ((잡지논문, 두 페이지 이상))
- 6 Crane Brinton, *A Decade of Revolution 1789-1799*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4), pp. 18-22. ((단일저자 단행본))
- 7 T. W. Wallbank and A. M. Taylor, *Civilization Past and Present, 2 vols.*, rev. ed. (Chicago: Scott, Foresman, 1954), v. 2, pp. 104-117. ((복수저자 단행본))
- 8 Eugene C. Black, ed., *Posture of Europe 1815-1940* (London: Dorsey Press, 1964), p. 102. ((편저자 단행본))
- 9 “America's Interest in the Cuban Economy,” *News Review* (January 20, 1936), p. 9. ((일간 신문 및 주간지 기사))

한 문헌 혹은 한 저자의 문헌을 여러 번 사용한 각주 작성 (Footnote)

한 저자의 자료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각주부터는 저자의 이름만 (영문의 경우에는 last name만) 기재하고 페이지를 적는다. 요즘은 “Ibid., op. cit.,”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차하순,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90), pp. 185, 124-124. (단행본, 2페이지 이상, 첫 번째 각주)
- 2 이영석, “영국 공장입법의 영향, 1833-56”, *서양사론* 40 (1993. 9): 129.
(잡지논문, 한 페이지, 첫 번째 각주)
- 3 김덕호, “미국의 금주법과 Wickersham 특별위원회”, *서양사론* 40 (1993. 9): 171-172. ((잡지논문, 2페이지 이상, 첫 번째 각주))
- 4 차하순, p. 57. (앞에서 사용한 같은 자료를 사용한 두 번째 각주)
- 5 차하순, p. 89. (앞에서 사용한 같은 자료를 사용한 다음 번의 각주)
- 6 이영석, “1830년대 영국의 공장개혁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p. 33. (학위 논문, 한 페이지, 같은 저자이나 다른 문헌)

- 7 Norman Gash, *Mr. Secretary Peel: the Life of Sir Robert Peel to 1830* (London: Longmans, 1964), p. 596; 김민제, “영국 국교회의 안전 보장과 Peel의 개톨릭교도 해방을 위한 변전”, *홍익사학* 4 (1990. 12): 65에서 재인용. 이하 김민제 논문은 “국교회”로 줄여서 씀. ((재인용과 문헌 약칭))
- 8 이영석, “영국 공장입법의 영향”, p. 128. ((한 저자의 두 개 이상 문헌))
- 9 이영석, “1830년대 공장개혁운동”, p. 45. ((한 저자의 두 개 이상 문헌))
- 10 이영석, “1830년대 공장개혁운동”, p. 45. ((위와 같은 문헌, 같은 페이지))
- 11 김민제, “국교회”, p. 67; 차하순, p. 88. ((앞에서 이미 사용한 저자의 2개 이상의 문헌을 참고할 경우 문헌의 제목도 쓴다))
- 12 Charles Stanforth, *The Study of History* (New York: Crown, 1961), pp. 42, 122-127. ((단행본, 2페이지 이상, 첫 번째 각주))
- 13 Cleveland Roland, “Machiavelli and Modern History,”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14 (February 1949): 49. ((논문, 한 페이지, 첫 번째 각주)) *Encyclopedia of Historical Science*, 2nd ed.,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by Rudolph Klein. ((사전류; 페이지를 명기할 필요 없음))
- 15 Charles Stanforth, *Cyclical Theory in Arnold Toynbee* (London: Greath & Sons, 1950), p. 42. 이 자료는 작은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었으나, Norman Parson, *Ancient and Modern Thinking* (London: Fernival & Ashwood, 1956), pp. 98-106에서는 넓은 주제를 일반적으로 다루었다. ((참고 사항 부가))
- 16 “Historians at War Again,” *Los Angeles Dispatch*, (January 14, 1969), sec. B, p. 2. ((일간지 및 주간지 기사))
- 17 Michelle Arnold and Dana Swope, eds., *New Trends in Historiography* (Philadelphia: Claxton, 1972), p. 104. ((편저자, 단행본, 한 페이지))
- 18 Stanforth, *Cyclical Theory*, p. 14. ((앞에서 사용한 저자의 작품이지만 다른 문헌))
- 19 Roland, p. 50. ((앞에서 언급했던 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두 번째 각주))
- 20 (29 March 2006). *Mentoring program survey: Student/Protégé*, <http://www.uncfsu.edu/univcoll/mentoring/mentoringsurveystdnt.ht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English. ((글의 제목, 접속한 날짜, 인터넷 주소, 저자(또는 작성자, 웹사이트 주인), 언어))

APA 스타일 참고문헌 표기법

APA 방식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주로 사회과학 연구논문을 위해 많이 쓰인다. 이것은 시카고 사회과학방식과 (Chicago Social Science Style) 동일하다.

APA 방식과 Turabian 방식의 차이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방식과 **투라비안** 방식 (Turabian) 중에 서로 다른 점은 몇 가지 뿐이다.

1. 참고문헌에서, APA 방식은 저자 다음에 출판년도를 표시하지만, 투라비안 방식은 (Turabian) 맨 뒤에 출판사 이름을 쓰고 다음에 년도를 표시한다.
2. 각주에서, APA 방식은 괄호 안에 참고문헌을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본문에 조화시켜 포함시키고 각주를 따로 달지 않는다. 꼭 설명이 필요하다면 endnote 즉, 책의 맨 뒤 또는 각 챕터의 뒷부분에 각주처럼 표시하는 미주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투라비안** 방식 (Turabian)에서는 각주로 표시하여 본문의 그 페이지의 하단에 따로 나타나게 한다.
3. 글의 소제목들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APA 방식에서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라비안** 방식 (Turabian)에서는 글의 구조에 따라 번호를 사용한다.

APA 참고문헌 예

((일반 단권 책))

Forman, R., Jones, J., & Miller, Bruce. (2004). *The leadership baton*. Grand Rapids: Zondervan.

((일반서적, 부제목이 있는 경우))

George, P. (1994). *College teaching abroad: A handbook of strategies for successful cross-cultural exchanges*. Boston: Allyn and Bacon.

((학위논문))

Giles, G. W. (1998). The relationship of intercultural competence to ministry effectiveness in the Christian college context. Doctoral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논문 등을 협회에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다운받거나 구입하였을 경우))

Gallimore, R., et al. (1992). *The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oundations of mentoring*. Unpublished document, Columbia University, Institution for Urban and Minority Education, New York.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54292)

((한 책에 여러 사람의 작품을 편집하여 각 장이나 부분별로 저자가 다른 경우))

Goodenough, W. (1987). Multiculturalism as the normal human experience. In E. M. Edy & W. L. Partridge (Eds.), *Applied anthropology in America*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잡지, 간행물))

Granfield, R. (1991). Making it by faking it: Working-class students in an elite academic environ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0, 331-351.

((저자가 내용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편집한 책))

Griggs, L. B., & Louw, L. (Eds.). (1995). *Valuing diversity: New tools for new reality*. New York: McGraw-Hill.

((인터넷: 저자. 접속한 날짜. 글의 제목. 인터넷 주소. 작성자 또는 웹사이트 주인. 언어.))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29 March 2006). *Mentoring program survey: Student/Protégé*.

<http://www.uncfsu.edu/univcoll/mentoring/mentoringsurveystdnt.ht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English.

((출판되지 않은 글))

김현완. (2012). “문헌정보 강의안”. 그레이스대학교.

APA 인용 (Citation) 예

위에서 말한 것처럼 APA 방식에서는 각주를 (Footnote) 달지 않고, 인용한 그 문장의 끝에 괄호를 하고 짧은 참고문헌 표시를 한다 (Short Citation). 그 내용은 저자의 이름, 출판년도, 페이지를 적는다. 한 페이지에서 인용했을 경우는 (p.)만 쓰고 페이지 번호를 쓰는데, 여러 페이지인 경우는 (pp.)를 쓰고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

인용문 쓰기의 예

인용문이 세 줄 이하일 경우 (또는 30단어 이하) 인용부호를 (“ ”)를 사용하여 본문의 일부처럼 취급한다. 인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인용의 중간에 끼어 있다면 생략 부호를 (...) 사용하여 생략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3줄 이상 또는 30단어 이상의 긴 인용문은 10칸 (10 space, 0.5인치) 정도 안쪽으로 들여 써서 문단을 형성하고, 행간에는 여백이 없다 (줄간격 100%). 이 경우 인용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짧은 인용문의 예

1642년 1월에 5명의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 왕 앞에서 “의회의 특권”을 주장했던 목소리는 역사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신이여 왕을 축복하소서”라는 다른, 그러나 매우 컸던 목소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참고문헌에 대한 각주를 삽입한다))

생략이 포함된 짧은 인용문의 예

“영국은 ... [영국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을 삼백 년 이상 향유하고 있다.” 영국 법은 영국만의 고유한 것이며, 이 사실은 “국가적인 자랑”이다. ((여기에 각주표시))

참고: [] 표시는 분명하게 원저자에 의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원문에는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연구자 자신이 삽입한 것임을 알려준다.

긴 인용문의 예

긴 인용은 본문보다 몇 글자 들어가서 (0.5인치) 시작하는 문단을 구성한다 (들여쓰기; indentation). 이 경우 인용부호는 생략하지만, 각주는 반드시 달아야 한다. 그리고 인용문은 한 줄간격이어야 하고, 인용문의 시작 전과 끝난 다음에는 한 줄씩 비워둔다.

Geoffrey Chaucer는 14세기에 Bath에 거주하였던 한 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Bath 부인의 5번째 남편은 한 책을 그의 부인에게 읽어 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사악한 부인들에 관한 책*이었다. Bath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남편이 그 저주받을 책을 밤이 새도록 읽을 것을 예감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 책을 가로 채어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가 우리 벽난로 쪽으로 돌아 가도록 면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여기에 각주))

이와 같은 기록은 중세 여성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수업까지 “조테로” (Zotero)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가져와야 한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http://www.zotero.org/download/>

프로그램을 통한 참고문헌 정리 및 학문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참고문헌의 규칙들이 각 학문적인 스타일마다 다르고, 문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여 규정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도 참고문헌 정리가 늦어지거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논문심사에 실패하거나 통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참고문헌 정리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Zotero (조테로)

조테로 프로그램은 각주와 (Footnote) 참고문헌을 (Bibliography)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만 하면 된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http://www.zotero.org/download/>). 그리고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면 프로그램을 지워도 다시 자료를 복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컴퓨터에 조테로를 설치해도 온라인 어카운트에서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점

-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한국어로 메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언어가 어색한 것이 많아서 익숙해져야 한다.
- 무료로 온라인 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

설치

- 최신 버전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Zotero”를 검색하거나 공식 사이트 (<http://www.zotero.org/download/>)에서 “Zotero”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구버전에서 불리던 “Zotero Standalone” 명칭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인터넷으로 등록한다.
-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한다. 웹계정을 만들어서 등록하면 조테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새롭게 설치하고 온라인에서 동기화하면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 라이브러리

- 내 라이브러리는 문헌정보 항목들을 모아놓은 컬렉션 폴더들을 나타낸다.

- 맨 위에 있는 “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모든 문헌정보 항목들이 보인다.
- 어떤 과목이나 주제별로 “컬렉션” 폴더를 만들어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컬렉션 폴더는 상단 메뉴 “File → 새 컬렉션 → 제목 입력 → OK”로 만든다.
- 다른 컬렉션 폴더로 항목을 옮기려면 그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끌어서 원하는 컬렉션 폴더에 놓으면 된다.

파일 (File) 메뉴

새항목: 새로운 문헌정보 항목을 입력시키고자 할 때 클릭하면 문헌의 종류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현재 자신이 입력하고자 하는 문헌이 어떤 종류인지 선택한다. 새로운 항목이 만들어졌으면 맨 오른쪽 창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다. 필요한 정보들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책이나 자료의 종류가 잘못 선택되었으면 “Item Type”에서 다시 선택하면 된다.

아이콘을 이용하여 새항목 입력하기: 새로운 문헌정보 항목을 입력하는 작업은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이콘들 중 녹색 “+” 버튼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파일 메뉴에서 “새항목”을 클릭했을 때와 같은 목록들이 나온다. 두 번째 아이콘 (막대 모양)을 클릭하면 ISBN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나온다. 이때 현재 입력하고자 하는 문헌의 ISBN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문헌이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해 준다.

새노트 (New Note): 새로운 노트는 본인의 어떤 노트기록들을 저장하여 문헌정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것을 클릭하면 맨 오른쪽에 워드프로세서처럼 창이 열리고 여기에 원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 기록된 노트는 문헌정보 항목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

새 컬렉션: 어떤 과목이나 주제별로 “컬렉션” 폴더를 만들어 문헌정보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새 컬렉션의 제목을 쓰는 상자가 나온다.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새로운 폴더가 “내 라이브러리”에 생긴다.

편집 (Edit) 메뉴

인용복사 (Copy Citation): 문헌정보 항목을 선택한 후 이것을 클릭하면 각주 (Footnote) 형태로 복사가 되고, 원하는 장소에 붙이기 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붙이는 것은 나중에 참고문헌을 만들 때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워드에 있는 Zotero 탭 (또는 Add-In) 메뉴의 툴바 중에 있는 각주 입력도구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서지복사 (Copy Bibliography): 문헌정보 항목을 선택한 후 이것을 클릭하면 참고문헌 (Bibliography) 형태로 복사가 되고, 문서의 맨 끝에 있는 참고문헌 (Bibliography) 자리에 커서를 놓은 후 붙이기 하면 된다. APA 방식이나 Chicago 방식을 선택하려면 “도구 (Tools) → 설정 (Settings) →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기본 출력 형식”에서 선택한다.

워드 플러그인 설치 및 각주/참고문헌 입력

워드 플러그인(Word Add-in) 설치: 실제적인 문헌정보를 (Footnote) 워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드에 조테로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Zotero 7 이상에서는 조테로 설치 시 워드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함께 설치된다. 워드를 열면 리본 메뉴에 별도의 “Zotero” 탭이 나타난다.

만약 Zotero 탭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테로 프로그램을 열고 **편집(Edit) → 설정(Settings) → 인용(Cite) 탭 → Word Processors** 섹션에서 “Install Microsoft Word Add-in”을 클릭하면 된다. (Mac의 경우: **Zotero → 설정(Settings) → 인용(Cite) 탭**)

각주 (Footnote) 입력: 워드에서 각주를 넣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워드 메뉴에서 “Zotero” 탭을 클릭하면 참고문헌 입력 아이콘들이 나타난다.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참고문헌을 입력할 것인지 묻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때 “**Chicago Manual of Style 17th edition (full note)**”을 클릭한다. 이것이 바로 “트라비안” 스타일과 동일한 것이다.

설정이 완료되면 검색 창이 뜬다. 거기서 자기가 입력하고자 하는 문헌을 검색하여 선택

하고, 인용한 페이지를 입력한다. 그리고 “OK”를 클릭하면 문헌정보 형식이 “트라비안 스타일”에 맞게 입력이 된다. 저자의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확인해 보고 수동으로 고쳐야 한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입력: 참고문헌을 워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워드의 “Zotero” 탭을 클릭하고 “참고문헌 삽입” (Insert Bibliography) 아이콘을 클릭한다.

도구 (Tools) 메뉴 / 설정 (Settings)

도구 메뉴(Zotero 6 이하) 또는 설정(Settings) (Zotero 7 이상)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주로 “환경설정/설정 (Settings)”만 사용하면 된다. Settings를 클릭하면, 일반, 동기화, 검색, 내보내기, 인용, 단축키, 고급 기능 등 많은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다.

동기화: 온라인에 자신의 계정을 무료로 등록하고 이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지 조테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동기화 할 수 있다.

내보내기 형식 설정: 인용 각주를 내보낼 때, APA나 Chicago 방식을 “기본 출력 형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설정(Settings) → 내보내기(Export) 탭에서 조정한다.

Text 파일을 Zotero 에 불러오기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헌정보를 조테로에 불러서 입력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1. text2bib (<http://text2bib.economics.utoronto.ca/index.php/index>)에 가입한다.
2. Text 파일을 변환한다.
3. 마지막 변환된 것을 저장한다.

4. Zotero 에서 불러온다.